5집 앨범 '느리게 걸어가는…' 낸 광주 출신 가수 김 원 중

"시인들 노랫말 음미하며 느리게 걸어가 볼래요?"

"향토성이 짙은 남도의 정서가 제 음악의 자양분이 됐어요. 단순히 지역에서 활동한다고 지역가수라고 부르면 서운하죠. 저는 남도가 좋아서 남도의 정서를 노래하는 겁니다."

'바위섬' '직녀에게'로 유명한 광주 출신 가수 김원중이 7년 만에 5집 앨범 '느리게 걸어가는 느티나무'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앨범에 대해 "음반을 만드는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음악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농익은 포크 음악을 선보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조금 남는다"며 "음악의 깊이에 대한 고민, 대중과의 소통, 2008년의 흔적 등 나의 삶과 인연이 담긴 소중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앨범은 가수생활 24년째인 그와 함께 추억을 나눈 선·후배들을 비롯해 안도현, 김용택 등 유명 시인들과 가수들이 참여하는 시노래 모임 '나팔꽃' 회원, 팬 등 300여 명의 지인들이 노랫말을 쓰고 가락을 붙였으며 앨범에 실린 인물화도 직접 그리는 등 다양한 형태로 앨범에 참여해 더욱 애정이 간다.

> "스타 시스템에 연연않고 주체적으로 문화 향유할 때 싹수 있는 아티스트 나오죠"

또 오토바이 하나로 시베리아를 횡당한 탐험가 김현국, 오랜 목수생활로 인해 손에 물갈퀴처럼 살이 차오른 도편수 박영산 등 그가 앨범을 준비하는 동안 맺은 소중한 벗들이 노래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등 아름다운 인연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앨범이기도 하다.

이밖에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백창우 시인의 '황톳길', 정일근 시인의 '장생포 김씨' 등 시에 멋진 선율을 붙여 의미를 더한 곡들도 실려 있다.

대중과의 소통을 고려해 만든 곡으로 '무등산 친구'와 '술 한 잔'을 그는 추천했다. 특히 '무등산 친구'는 부산을 대표하는 노래로 '부산갈매기' '돌아와요, 부산항에'등이 꼽히는 것처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노래로 불렸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만든 노래다.

그는 "열악한 제작환경이었지만 본격적으로 앨범을 준비했던 3~4년 동안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곡을 선정하고 '김원중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 수도 없이 노래를 불렀다"면서 "싱글 앨범이 유행인 요즘 같은 시대에 정규앨범형식으로 음반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앨범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유명한 가수와 화려한 공연 등 '스타 시스템'에 연연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때 지역에서도 '싹수 있는 아티스트'가 나올 수 있고 문화수도 광주가 될 수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삶이 고달프더라도 자기만의 음악과 영역을 확보하는 등 치열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음악을 비롯한 문화활동 행위가 경제적인 수단으로만 치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다.

앞으로 그는 올 연말까지 방송출연 등을 통해 앨범 홍보활동에 전념할 생각이며 내년 초부터는 전국 투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사회단체 주관 공연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종합병원 2' 원작 영광 다시 한번 MBC 19일 방영

1994년부터 2년 동안 전파를 탄 MBC TV '종합병원'은 당시 평균 시청률 21%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모았다. 이재룡, 신은경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드라마는 이후 숱하게 만들어진 의학드라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원조' 드라마로 자리 잡았다.

14년 만에 다시 만들어져 19일부터 방송되는 MBC TV '종합병원2'(극본 최완규·권음미·창, 연출 노도철)가 원작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노도철 PD는 최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한국적 휴머니즘이 가미된 메디컬드라마를 만들 것"이라며 "병원 내의 권력관계를 다루는 의학 드라마가 많은 요즘 '종합병원' 1편이 지향했던 휴머니즘이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말했다.

1편에서는 이재룡, 신은경을 중심으로 '독사' 오욱철, 박형준, '마 간호사' 김소이 등이 극을 이끌어갔다. 2편에서는 '빤질이 레지던트 1년차' 차태현(최진상 역)과 사법고시를 통과한 독특한 이력의 레지던트 김정은(정하윤 역)이 중심이 된다.

김정은은 "의사로서도 외울 게 많은데 법률 용어까지 읊어야 하니 머리 아프다"며 "여기에 등장인물도 많고 매번 새로운 환자와 여러 에피소드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때문에 다른 드라마보다 감정과 인물 관계를 설정해나가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차태현은 "'해바라기'에서 의사 역을 해 봤기 때문에 의학 드라마에 미련은 별로 없었다"며 "'종합병원2'는 '2편'이라는 느낌이 새로워서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류진(백현우 역)은 '종합병원' 1편에 출연했던 전광렬의 동생으로 2편에 출연한다. 류승수는 전편의 오욱철을 연상케 하는 독한 성격의 레지던트 4년차 조용한으로 등장한다.

/연합뉴스

11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007 퀀텀 오브 솔러스	66만7천761	86만5천672
2	아내가 결혼했다	20만5천445	147만3천585
3	뱅크 잡	10만2천676	38만4천100
4	이글 아이	8만8천461	219만32
5	플라이 미 투 더 문	5만2천951	11만9천124
6	소년은 울지 않는다	5만899	6만1천862
7	맘마미아	4만3천915	440만9천607
8	바디 오브 라이즈	3만8천629	55만4천410
9	서양 골동 양과자점 앤티크	3만2천204	3만2천986
10	굿 바이 : Good & Bye	2만556	11만1천43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시청률	
1	너는 내운명	KBS1	29.7
2	일요일이 좋다 1부	SBS	29.6
3	에덴의 동쪽	MBC	24.9
4	내사랑 금지옥엽	KBS2	22.0
5	해피투게더	KBS2	20.1
6	베토벤 바이러스	MBC	20.1
7	유리의 성	SBS	19.4
8	무한도전	MBC	17.9
9	개그콘서트	KBS2	17.8
10	가문의 영광	SBS	17.4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강철중 : 공공의 적 1-1	액션
2	인디아나존스:크리스탈해골의 왕국	액션
3	아이언 맨	액션
4	인크레더블 헐크	액션
5	적벽대전 : 거대한 전쟁의 시작	액션
6	고사 : 피의 중간고사	공포
7	21	드라마
8	추격자	스릴러
9	섹스 앤 더 시티	로맨스
10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스릴러

〈자료제공:으뜸과 버금〉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어제보다 오늘 더	김종국
2	노바디	원더걸스
3	레이니즘	비
4	러브 스토리	비
5	어쩌다	브라운아이드걸스
6	주문-MIROTIC	동방신기
7	미쳤어	손담비
8	1분1초	에픽하이
9	들리나요	소녀시대 태연
10	하루하루	빅뱅

〈자료제공:멜론〉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51·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편집부 2200-629
정치부 2200-616
경제부 2200-617
사회1부 2200-618 〈팩스 222-4267〉
사회2부 2200-619 〈팩스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26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경영지원국 2200-511 〈팩스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팩스 227-9500〉
디자인 2200-536
문화홍보국 2200-541 〈팩스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팩스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10,0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